미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문사회적 상상력의 필요성 : 코로나 판데믹과 미래문해력을 중심으로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19라는 위험과 격변의 세계

2020년 인류는 예기치 못했던 미래위험의 도래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그동안 인간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가들조차 이 위험의 미래모습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고 이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때 지리적 위치, 인적자원의 교환이 가장 활발한 한국에서는 긴장은 했었지만, 설마 우리도 저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하는 낙관이 우세하였다. 2월 말부터 한국이 중국에 이은 제 2의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가 되었을 때, 이를 긴급히 보도하는 유럽 국가들의 뉴스들은 '그냥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정도였으며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사는 지구 반대쪽까지 번지게 된다는 예측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대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할 때,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일일 뿐, 미국 대륙까지 이러한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결국 모든 예측이 틀렸다. 예측의 총체적 실패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최고의 과학자들도 그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한 이 미지의 위험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기자와 앵커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다. "언제쯤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았다. "이 바이러스의 원인과 특성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상자와 경제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 이 위험을 현재까지 보면 한국(대만 역시)은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의 합리성,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화의 모델이 되어온 서구 국가들 중 특히 가장 선두에 있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이 대처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0년 4월 19일 여전히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확진자가 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글이 게재되는 시기에는 계속 줄어들지 혹은 갑작스럽게 또다시 증가할지도 궁금하다.

위험에 대처하는 리더들의 예측의 성공과 실패

먼저 코로나19라는 미지의 위험에 대처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미래예측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서구 국가 중에서 사실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사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프랑스의 대처는 실망을 넘어 경악할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마스크의 절대적 부족이었다. 의료진도 수주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위험에 바로 노출되었으며, 마스크의 절대 부족으로 약국에서 의료진에게만 이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일반인들은 마스크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자들은 폭증했다. 돌이켜보면 2009년 당시 보건부 장관이던 로슬린 바실로는 마스크의 국내 생산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리더들로부터는 거센 비난을 받는다. 그 비난은 "프랑스의 미래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마스크의 국내 생산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미래에 전염병이 돌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된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바실로 장관은 "만약 마스크의 국내 생산을 줄이게 되면, 미래에 전염병이 발생할 때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반박하였으나, 프랑스의 엘리트 정치리더들은 이 예측

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마스크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10년 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불과 한 달여 만에 무려 12만 명의 확진자와 2만 명의 사망자라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20. 4. 23 기준).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히려 자유롭게 확산시키면 전 국민이 면역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국가리더가 받아들이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13만 명의 확진자와 1만 8천 명의 사망자라는 엄청난 상황을 겪고 있으며('20. 4. 23 기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늦게 시작된 탓에 아직 최고점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미국 역시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갖춘 국가이지만 2월 말 대통령이 "이것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3만 명의 확진자와 4만 6천여 명의 사망자('20. 4. 23 기준)라는 말도 안 되는 국가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2월 말 아시아와 유럽에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자신들도 곧 이를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스크를 오히려 수출하는 잘못된 예측을 하였다. 한국 역시 초기의 예측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빠르게 국경을 봉쇄하는 것의 필요성(4월 중순부터 비로소 시작된), 대규모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것의 필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 바이러스는 미지의 예측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정치리더들이 다른 국가의 정치리더들에 비해 예측능력을 우월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과거 경험으로부터 얻은 예측능력'이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광범위한 검사와 확진자의 접촉자들의 격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아픈 경험을 토대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현장을 지휘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의 협력을 얻어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현 정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얻은 예측능력'은 국민으로 하여금 거의 처음으로 '우리가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초기의 예측실패를 대단히 빨리 인정하고, 3월 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전 국민의 외출금지령을 내렸으며, 영국의 존슨 총리 역시 빠르게 외출자제령을 내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결국에는 정책 기조를 바꾸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문제는 리더들의 이런 예측과 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출금지령이 내리기 직전까지 프랑스 국민들은 '설마 우리에게 감염이라는 후진국 위험이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카페, 바, 공원을 가득 채우면서 일상을 즐겼다.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이 가져올 수 있는 감염확산 위험에 대해 예측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미국 국민들도 대통령이 심각하게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그 누구도 우리의 봄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하며 해변가에서 파티를 계속 즐겼다. 해변가를 가득 메우면서 사람 간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지 예측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리더들이 아무리 예측을 하고 정책을 제시해도 일반인들의 미래예측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 미래문해력(Foresight Literacy)이 여기서 다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미래문해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의 위험대응력

필자는 2014년 KDI의 연구보고서에 '미래문해력'에 대한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 보고서에서 미래문해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미래문해력은 주체(개인, 조직, 국가 등)의 발전 여부에 그 영향을 크게 미칠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를 행동과 결정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

미래문해력은 크게 세 가지를 위해 필요하다. 먼저 '사회변화의 주체들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해 필요하다.[2] 즉 미래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방향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정부리더들의 예측과 정책이 소통되며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현재 준비를 도모할 때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리더들에 의해 바이러스 확산 예측과 정책이 제시되었을 때 국민들 역시 경험을 통해 미래문해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협업하여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 한국 국민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았고, 사람들 간의 1미터 간격을 유지했으며, 아름다운 봄이 왔음에도 외출을 자제하였고, 특히 마스크 5부제라는 불편한 정책에도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였다. 이러한 협력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정부리더들의 예측과 정책이 잘 되었어도 상황은 통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래문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만을 따지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위험상황은 통제되지 않는다.[3] 유럽과 미국에서 휴지 사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스크 절도가 일어났던 것은 역시 미래문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미래문해력은 두 번째로 "미래변화를 인지하고 현재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일회성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역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미래문해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이 미래에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면 이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거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정하고 현재를 준비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학습하며 일을 하는 사회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학자 파슨스가 이야기한 '한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행위들'에 해당한다.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면대면 학습과 업무를 하는 데 대단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미래문해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행위의 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미래문해력은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거짓 정보들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미래문해력이 부족하면, 그럴듯한 이미지들과 논리까지 갖춘 텍스트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거짓 정보('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여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미래문해력을 갖춘 상태의 국민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거짓 정보들이 많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파급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었지만, 결국 국민들은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믿었다. 이는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미래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한국 국민들의 미래문해력은 전 세계적 위기를 한국이 현명하게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미래문

해력의 가치를 다시금 새기게 한다. 먼저 미래문해력은 '자신이 현재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전체 사회의 생존에 있어 미래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 혹은 조직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앞서 프랑스의 사례처럼 현재의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전체의 생존을 도외시하는 국가에게 특히 미래문해력이 요구된다. 또한 미래문해력은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얻는 현재의 인기와 명성보다는 전체 사회가 미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국가리더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국민들이 당장은 불편함을 호소해도 이러한 방법이 미래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왜 미래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인문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미래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문해력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미래문해력이란 어떤 것을 통해 얻어지는가? 미래문해력은 단순히 정보처리능력, 기술활용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래문해력은 무엇보다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얻어진다. 그런데 한 개인의 경험은 한계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은 타인의 경험들을 담아놓은 인문사회 서적들을 통해 얻어진다. 역사책, 경험에 대한 에세이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즉 이러한 인문사회적 경험은 한 개인의 미래문해력에 핵심이 되는 지혜를 얻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와 기업에 가장 큰 이윤을 빠르게 가져다주게 되면서 인문사회학은 점점 외면당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겪게 된 코로바 바이러스 위험은 이 위험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인문사회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 물론 이 위험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기까지, 혹은 나온 후에라도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인문사회적 상상력만이 미래문해력을 구축할 수 있다.

먼저 인문사회적 성찰은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은 주체-객체가 아니라 동등한 공존의 주체임을 깨닫게 해준다.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을 통제하고 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행복을 누려온 인류는 인문사회적 성찰을 통해 이번의 코로나19 사태도 결국은 인간과 자연을 공존의 관계에서 보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인문사회적 성찰은 또한 개인의 행복과 인류공동체의 생존 중에서 어떠한 가치가 중요시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많은 역사책에서 우리는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사회가 어떻게 위험에 빠졌는지를 알고 있다. 근대 이후 개인의 행복을 공동체의 가치보다 더 중시했던 것은 그동안 공동체의 가치에 개인의 가치가 너무나도 매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억압되어온 인간의 해방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행복은 이제 스스로 통제되어야 하며, 그것이 종국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다시 추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인문사회적 성찰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서구에서 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를 제기하며 그 도입을 주저하는 것은 인문학적 성찰과 미래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는 공동체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개인의 행복은 스스로 통제되어야 공동체가 생존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여전히 인류공동체의 생존보다 개인이 당장의 편리와 행복을 추구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위험이다. 한국도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문사회적 상상력은 미래에 대해서도 단순히 '밝은 미래-어두운 미래'라는 이분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극복하게 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사회적 상상력은 나의 행위가 어떻게 타인의 행위로 이어지며, 이것이 전체 공동체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결국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게 해준다.

새로운 미래의 위험들과 한국의 미래문해력

2020년 말을 감히 예측해보자면, 한국은 여름을 기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통제할 것이고, 유럽과 미국은 여름을 넘기고서야 엄청난 피해를 남긴 채 이를 간신히 통제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한국의 국가브랜드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이고, 서구중심의 가치들에 대한 서구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일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한국인들은 한동안 미래의 예측과 대응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거대한 위험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위험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치 코로나19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양산했듯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핵전쟁, 인공지능의 위험, 온난화가 그것이다.

여전히 불안한 외교적 상황은 핵전쟁의 위험을, 사회적 합의 없이 기업의 주도로만 이루어져 부정적 효과들은 모두 뒤로 미뤄둔 채 직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소외의 위험을, 그리고, 매년 경험하면서도 더위가 지나가면 잊게 되는 망각효과는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위험을 점점 가깝게 다가오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바이러스 상황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미래문해력을 토대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는 서구에 비해서 오히려 부족한 미래문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위험들은 분명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혹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위험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번에 끝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든 미래위험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적 성찰과 상상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

1) 최항섭, 2014: 166-168
2) 최항섭, 2014: 169
3) 최항섭, 2014: 170

참고문헌

- 최항섭(2014), 「미래문해력이란 무엇인가?」, KDI 미래한국연구보고서.